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한 교육 담당자가 아니다. 학생들의 신앙 여정을 곁에서 지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 부모, 곧 ‘소울 페어런트’(Soul-Parent)이다. (사)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 출간한 ‘2026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에 따르면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음세대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역을 시작(40%)·헌신하고 있으나, ‘학생 관리’ 및 ‘교수 능력’ 등 실무 영역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과 현장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

교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은 많은데, 이것을 교사 개인의 사명감과 헌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번 <넘버즈 348호>에서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세번째로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조명하고,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를 강력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어떤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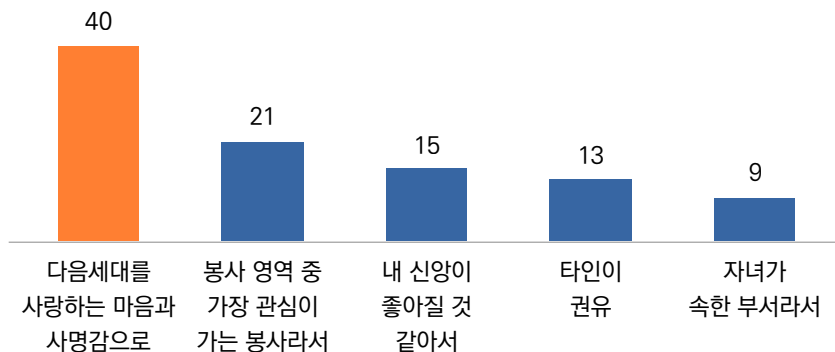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 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 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교회학교 교사 사역 동기 1위, '다음세대에 대한 사명감'!

- 교회학교 교사 사역 동기에 관해 물은 결과, 교사들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4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봉사 영역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봉사라서'(21%),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서'(15%) 등의 순이었다.
- 교사들의 사역 기반에는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영적 소명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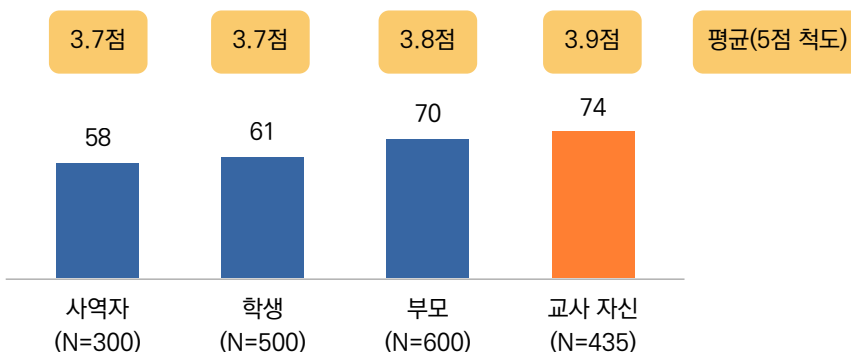
[그림] 교사 사역 동기 (교사, 상위 5개, N=435, %)



교사 만족도, 교사 자신은 74% vs 사역자 평가는 58%

- 사역자, 학생, 부모, 교사 본인 대상으로 교회학교 교사 사역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를 물은 결과, 교사 자신의 만족도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모(70%), 학생(61%), 사역자(58%) 순이었다. 특히 교사 본인과 사역자의 만족도에는 16%p의 차이가 나타나, 교사 스스로의 평가와 그들을 지도하는 사역자 평가 사이에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사 만족도는 전 그룹에서 5점 만점 평균 3.7점~3.9점 분포로, 대체로 보통 수준의 수치를 보였다.

[그림] 교사에 대한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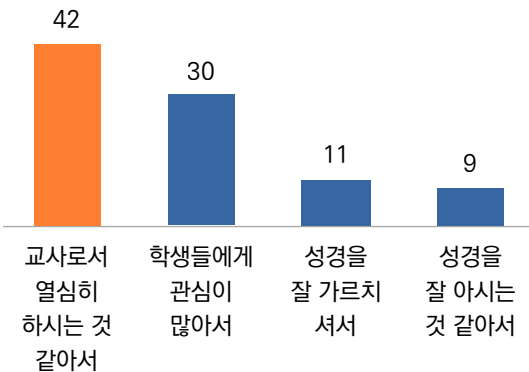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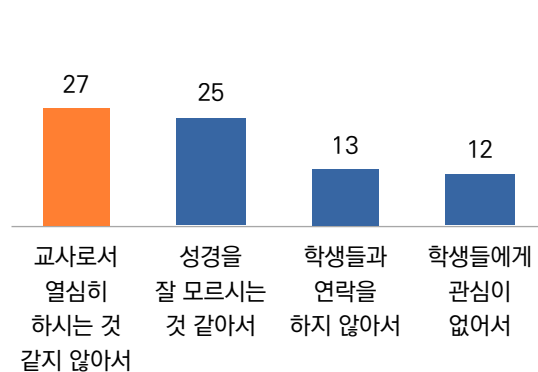
학생의 교사 만족·불만족을 좌우하는 1위 요인, ‘교사의 열정’!

- 교사 만족 요인을 교회학교 교사에 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묻은 결과, ‘교사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42%)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아서’(30%)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 반면 교사 불만족 요인(교사에 불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대상)으로는 ‘교사로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서’(27%)와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25%)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결국 교사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교사의 열정’, ‘학생을 향한 관심’으로 압축할 수 있겠다.

[그림] 교사 만족 요인 (교회학교 교사 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상위 4개, N=306, %)



[그림] 교사 불만족 요인 (교회학교 교사 불만족하는 교회 출석 중고생, 상위 4개, N=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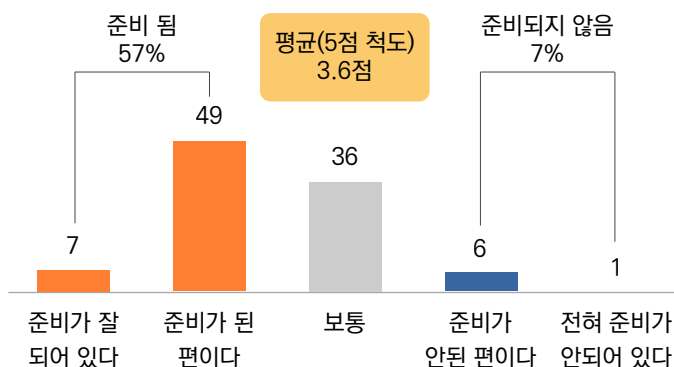
02

[교사 역량]

교사 절반 정도만 ‘교사로서 전문성 갖췄다’고 평가

- 사역 동기를 통해 교사들의 사명감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교사들의 실제 사역 전문성 수준은 어떨까? ‘교사 전문성 자기 평가’ 결과, 교회학교 교사의 57%인 절반 남짓이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5점 만점 기준 평균 3.6점이었다.

[그림] 교사 전문성 자기 평가 (교사,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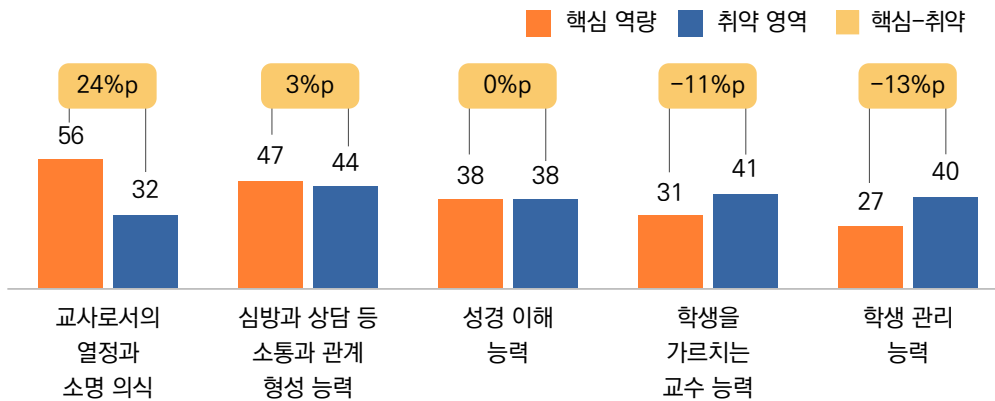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필요도 대비 가장 취약한 교사 역량, ‘학생 관리’와 ‘교수 능력’!

- 교회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1+2순위)으로는 ‘열정과 소명 의식’(56%)이 1위로 꼽혔으며, 이어 ‘소통/관계 형성 능력’(47%), ‘성경 이해 능력’(38%) 등의 순이었다.
- 반면 교사 본인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소통/관계 형성 능력’(44%), ‘교수 능력’(41%), ‘학생 관리 능력’(40%) 순이었다.
- 특히 핵심 역량 대비 취약 역량의 격차를 살펴보면 ‘학생 관리 능력’(-13%p)과 ‘교수 능력’(-11%p)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는 교사 대상 실질적인 학생 관리 및 수업 진행 스킬을 보완해 주는 교회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vs 본인의 취약 영역 (교사, 1+2순위, 상위 5개,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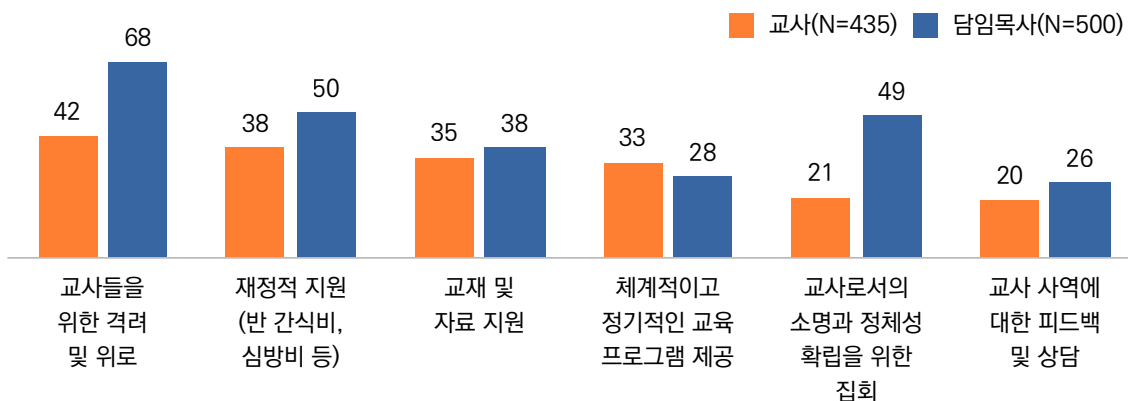
03

[교회의 교사 지원]

교회의 교사 지원, 목회자와 현장 교사 간 체감 온도 차 크다!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회가 현재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묻은 결과, 교사, 담임목사 모두 ‘교사를 위한 격려/위로’와 ‘재정적 지원’을 상위 1,2위로 꼽았다.
- 그러나 지원에 대한 체감 온도 차는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격려 및 위로’의 경우 담임목사는 68%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교사의 체감 비율은 42%에 그쳤다.
- ‘소명/정체성 확립 집회’ 역시 담임목사 49%에 비해 교사(21%)의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교회가 제공하는 지원과 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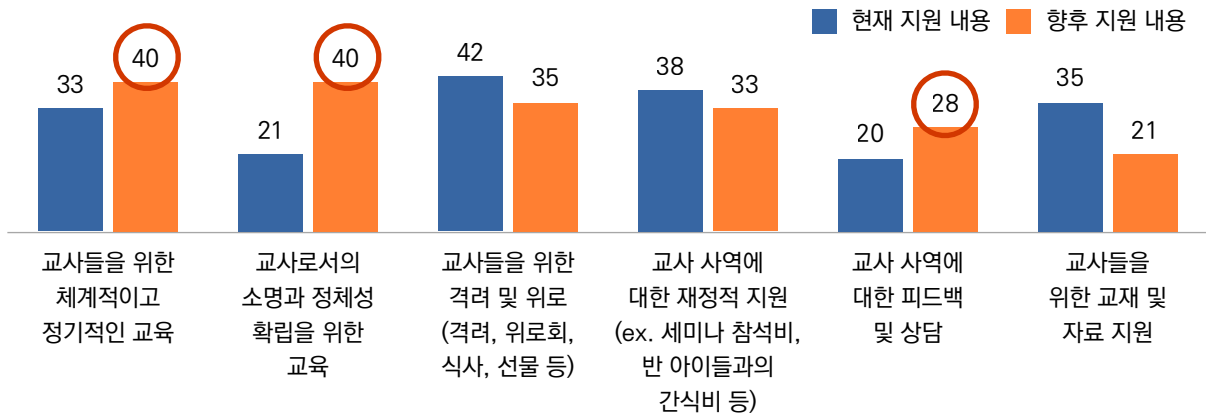
[그림] 현재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의 지원 내용 (중복응답, 상위 6개, %)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과 향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비교한 결과, 현재는 ‘격려/위로’(4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들이 향후 강화를 원하는 지원 항목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40%), ‘교사로서 소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40%)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교사 사역에 대한 피드백’ 요구(28%)도 현재 지원(20%)보다 필요도가 크게 높았다.
- 이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회가 일회성 이벤트나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 내용 vs 향후 강화해야 할 지원 내용 (교사, 중복응답, 상위 6개, N=4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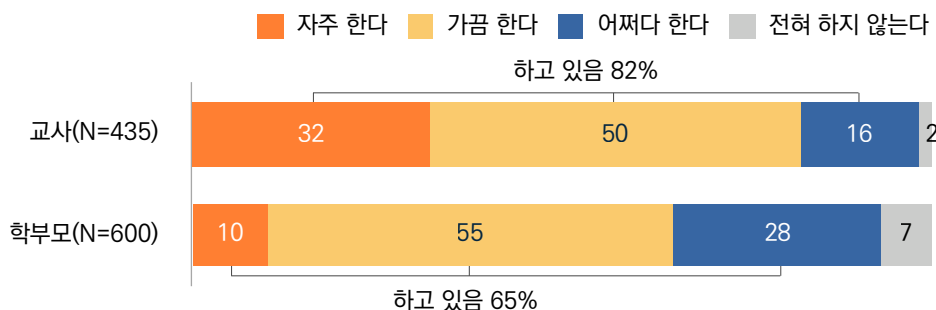
04

[가정-교회학교 교사 소통과 사역 지속성]

교사-학부모 간 소통 인식 차, 교사 82% vs 학부모 65%가 ‘소통한다’!

- 교사와의 소통 수준에 대해 양 집단(교사 본인, 학부모)에게 각각 묻은 결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교사는 82%에 달한 반면 부모는 65%에 그쳐 17%p의 인식 격차를 보였다.
- 특히 적극적 소통을 의미하는 ‘자주 한다’는 응답은 교사(32%)가 부모(10%)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학부모가 체감하는 소통의 빈도와 깊이는 이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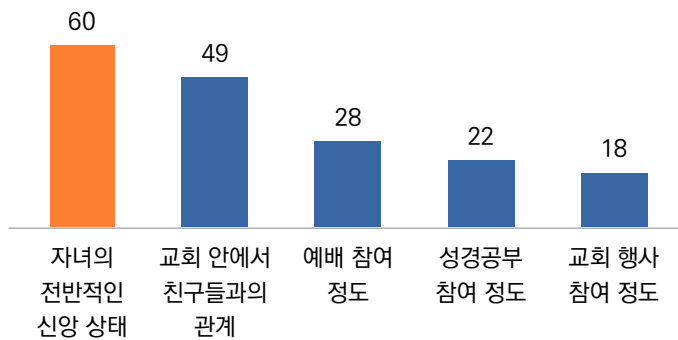
[그림] 교사-학부모 간 소통 수준 (%)



부모, 교사와 ‘자녀의 전반적 신앙 상태’에 대해 소통 원해!

- 교회학교 학부모가 교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 하는 내용(1+2순위)은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49%)가 뒤를 이어, 단순 출석 여부나 행사 참여 정보보다는 자녀의 신앙적·관계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공유를 희망하고 있었다.
- 이는 교회학교 교사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학부모와 자녀의 신앙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신앙적 조연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을 부여주고 있다.

[그림] 교사와 소통 희망 내용 (부모, 1+2순위, 상위 5개, N=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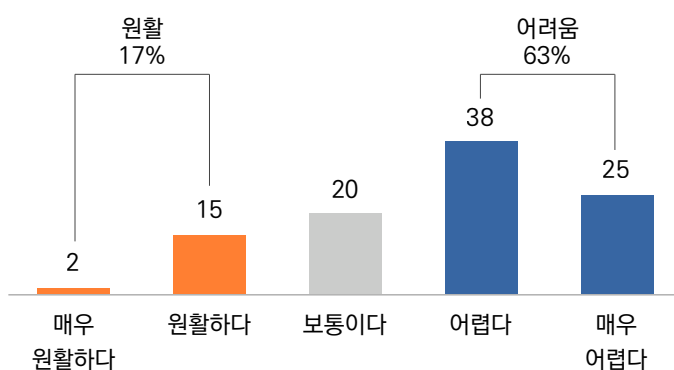
05

[기타]

사역자 3명 중 2명 가까이, 교사학교 교사 총원 어렵다!

- 교회학교 신규 교사 수급이 원활한지를 사역자들에게 묻은 결과, ‘어렵다’(63%)는 응답이 ‘원활하다’(17%)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현장 사역자 3명 중 2명 가량(63%)은 교사를 새롭게 총원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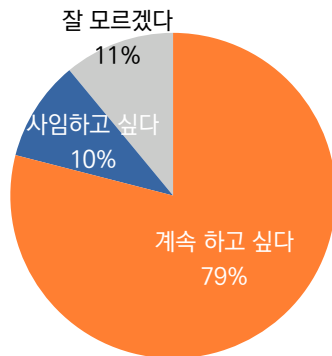
[그림] 교사 총원 원활성 (사역자,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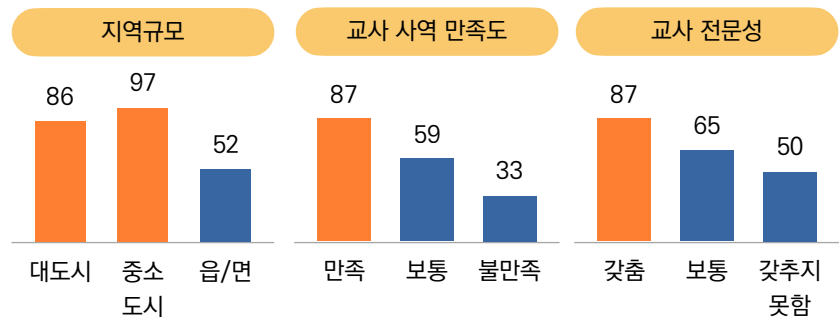
교사 10명 중 8명, '사역 계속 하고 싶다'!

- 교사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교사 10명 중 8명(79%)이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사임하고 싶다'는 10%에 그쳤다.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중소도시' 이상(중소도시 91%, 대도시 86%)인 경우, 교사 사역 만족도가 높을수록(만족 87%, 불만족 33%) 지속 의향이 확연히 높았다. 또한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느낄수록(갓춤 87%, 갖추지 못함 50%) 교사 직분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해, 교사의 사역 만족도 제고와 전문성 강화 교육이 교사 수급 안정화의 핵심 열쇠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사 지속 의향 (교사, N=435)



[그림] 응답자 특성별 교사 '계속 하고 싶다' 비율 (교사, N=435, %)



이번호 요약

1. 필요도 대비 가장 취약한 교사 역량, '학생 관리'와 '교수 능력'!

교사의 핵심 역량 대비 취약 역량의 격차를 살펴보면 '학생 관리 능력'(-13%p)과 '교수 능력'(-11%p)에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2. 교사, 격려보다는 '체계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 원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재 교회의 지원은 '격려/위로'(42%)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향후 강화를 원하는 지원 항목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40%)과 '교사로서 소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40%)이 공동 1 위였다. 또한, '교사 사역에 대한 피드백'(28%) 항목도 현재(20%) 대비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부모, 교사와 '자녀의 전반적 신앙 상태'에 대해 소통 원해!

교회학교 학부모가 교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하는 내용(1+2순위)은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60%)로 조사됐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교사 베이직 (생명의말씀사, 이정현 저)

관련 성경 구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목회 적용점

교회학교 현장의 요구는 명확하다. 교사들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 교사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키워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장 교사들의 역량 격차(필요-취약 역량)를 보완하고, 부모와 사역자가 함께 다음세대를 세우는 동역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 관리'(-13%p)와 '교수 능력'(-11%p)에서 필요도 대비 가장 큰 한계를 느끼며, 현재의 '격려/위로'(42%) 중심 지원보다 '체계적·정기적 교육'과 '사역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 교수법과 학생 관리법을 다루는 교육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사역 피드백 제공을 통해 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성장을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사-사역자-부모를 하나로 묶는 원활한 소통 채널을 다각도로 구축해야 한다. 학부모의 60%는 자녀의 전반적인 신앙 상태에 대해 교사와 깊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일 하루에 머무는 교육을 넘어, 가정(부모)과 교회(사역자, 교사)가 자녀의 영적 상태를 상시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삼겹줄 소통 구조'가 필수적이다. 교사와 부모가 사역자의 지원 아래 긴밀히 협력할 때, 다음세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강력한 영적 울타리가 완성될 것이다.